

2025 10  
통권 306호

#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도서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 티움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장기택 야누아리오  
(가은 본당 성유공소 전 공소 회장)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 5.

성경 말씀은 정상동 성당 김은주 리더아님께서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폭풍우에 갇힌 작은 배처럼 허우적 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그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실 날들이 훨씬 더 적게 남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존귀한 우리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함과 사랑속에서 그 모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 *Laudate Deum*

#### 제1장 피해와 위험

18. 그렇기에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더 넓은 시야로 우리는 발전의 경이로움에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른 영향들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길 유산에 대한 특정한 책임입니다.

19.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인간 생명과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환경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의 두 가지 확신을 성가실 정도로 강조하며 반복하고자 합니다. 곧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생 교구로서 출발선상에 선 안동교구”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9년 5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안동교구의 설정에 관하여 <안동교구는 대구교구와 원주교구에서 분리하여 설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여러분은.....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사도1,8)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한국 땅에 새 교구를 하나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사절 대주교 히폴리토 로톨리(Hippolito Rotoli)의 판단과 의견을 받아들여 새 교구를 설정합니다.....안동, 예천, 봉화, 영주, 영양, 영덕, 청송, 상주, 문경, 울진 지역(군)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대구와 원주교구에서 분리하여 새 교구를 설정하여 안동교구라 칭합니다. 안동교구는 대구관구에 속합니다. 안동교구의 주교좌는 안동시에 두며, 그 시에 있는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성당’을 주교좌성당으로 하고, 영예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로마사도 성베드로 좌에서 1969년 5월 29일, 교황재위 6년에  
상서국장 추기경 A. 프랄리아  
인류복음화성장관 추기경 G.P 아가지아니안  
상서국 담당자 F. 띠넬로.”

또 다음은 교황 바오로 6세가 <두봉 주교에게 보낸 교구장 임명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새로 설정한 안동 주교좌성당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두봉 레나도 신부를 임명함. 하느님의 종들 중의 종인 바오로 주교(교황)는 파리외방전교회 회원이자 새로 설립된 안동교구의 주교로 뽑힌 사랑하는 아들 레나도 두봉에게 건강과 사도적 축복을 보내노라.

주교 없는 교회는 목자 없는 양 떼와 같고, 목자의 현명한 관심을 받을 수도 없으니. 자녀들이 아버지의 열성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본 교황은 하느님의 지극히 관대한 뜻에 따라, ‘당신의 전체 집 위에’ 세우신 거룩한 사도 베드로처럼,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받았으므로,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장상 없이 오랫동안 있는 것을 버려 둘 수 없어 이 날짜로 발송한 ‘직무에 관하여(Quae In Actibus)’라는 사도적 서한을 통하여 안동교구를 설정하여 열심히 부지런한 주교를 그 교구에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를 새로 탄생하는 교구의 장상으로 여기고, 열심과 지혜로써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우리의 존경하올 형제이며, 한국의 교황대사이자 띠티비우첸시스 교구의 명예 교구장인 히벨리토 로틀리 대주교와 인류복음화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를 안동교구장으로 임명하며, 주어진 모든 관리와 행정. 종교재산이나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주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누리도록 명하노라. <이하 생략>

.....천주강생 1969년 5월 29일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6년에 상서국장 알로이시오 뜨랄리아가 교황청에서 7월 23일 발송.”

다음 호에서는 초대 교구장 두봉 주교의 서임식에 관하여 알아볼 것이다.

##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

문경지구 청년회  
점촌동 본당 장재진 프란치스코

2020년 가을, 직업군인으로 대구에서 군 복무 중이던 나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었다. 소개팅 상대가 선임 배우자의 사촌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망설여졌지만, “일단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무작정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던 기억이 난다. 첫 만남 당시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노을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마음이 설레었던 순간만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까지 나에게 신앙생활은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가 되었다.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형제자매 중에는 수도 생활을 하시는 수사님과 수녀님도 계셨다. 그런데도 그녀는 신앙생활에서 떨어진 상태, 즉 냉담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단순히 “부모님이 천주교 신앙을 하시는 집안이구나” 정도로만 느껴졌고, 앞으로 신앙이 내 삶에 다가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몇 차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때마다 느낀 점이 있었다. 그녀의 가정은 늘 밝고 따뜻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다.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참 깊고도 따뜻했으며, 나 역시 본받고 싶었다.

‘과연 저 힘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막연히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이제는 나의 장모님께서 작은 소원을 말씀하셨다. 바로 관면혼배였다. 나는 기꺼이 하겠다고 답

했다. 당시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신앙이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나도 신자가 되어 혼배성사로 가정을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문제는 내가 문경으로 발령을 받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점이였다. 고민 끝에 천주교 신자인 오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무척 기뻐하며 점촌동 성당에서 세례반을 모집 중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당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 뒤돌아보니 참으로 신기하고 뜻깊은 순간들이 많았다. 처음 경험한 성당의 큰 행사들에 놀라워하기도 했고, 세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제관에 초대되어 군중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일도 있다. 어느 날은 수녀님의 권유로 갑작스레 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첫 복사 때는 너무 긴장해 기억조차 흐릿하고, 두 번째에는 넘어지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또 신부님의 권유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되어, 봄 소풍을 비롯해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마음을 행동과 태도로 드러내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 성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주는 큰 선물이다. 장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 또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끝으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단단히 세워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

## 마가목(馬家木)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마가목이 만병통치약으로 통용되었던 때가 있었다. “풀 중에 산삼이 최고라면 나무 중에는 마가목이 최고”라는 허황된 말이 나돌았고 마가목 한 그루가 말한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마가목(馬價木)으로 표기했으며 생육이 까다로워 강원도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이나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나무라 선전했다. 게다가 마가목은 초여름에 예쁜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멋지게 단풍드는데다 ‘사랑의 열매’를 닮은 빨간 구슬 같은 열매는 겨울에도 달려있어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니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열매로 술을 담아 큰 유리병에 넣어 장식용으로 하고 약술처럼 먹기도 했다. 붉은 빛깔이 홍주 같고 그걸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 하니 울릉도 여행가면 너도 나도 기념 선물로 사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마가목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면 잘 자라기에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가로수와 관상수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주변의 산에서도 자생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 농가 소득작물로 한 때 많이 심었는데 그 유행이 한 풀 꺾였다. 왜냐하면 마가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애초에 만병통치약이란 없기 때문이다. 약은 곧 독(毒)이라서 어느 한쪽으로부터만 작용하고 약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고 모든 병에 다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약재는 약성에 대해 잘 아는 한의사들이 병증에 맞게 쓰도록 지도하는 것을 따라야지 민간요법이라고 약장시들이 선전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마가목의 진짜 약효에 대해 알아보자. 마가목은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좋은 HDL(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면서 몸에 나쁜 LDL(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기에 중풍 치료와 예방에 좋다. 그리고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가라



앉히기에 기관지에 좋고 후두염증을 낮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뇨 작용도 있어서 부기를 가라앉게 하고 체중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기도 하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노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마가목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정력에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정공등(丁公藤)이라는 다른 약초로 마가목(*Sorbus commixta*)은 장미과의 갈잎큰키나무이고 정공등(*Erycibe obtusifolia* Benth)은 매꽃과의 덩굴식물로 둘은 엄연히 다르며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다. 이 정공등이라는 한약재를 소개하면서 마가목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다보니 생겨난 오류다. 그러니 마가목을 정력에 좋은 약으로 알고 과용하면 부작용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것같이 오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 죽을 목숨인 우리는 라자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잠에서 깨우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대한 우리 믿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 화령 본당 모서공소

**Q : 모서공소는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 이곳에 와서 정착하실 때 어떠셨나요?**

교우 1 : 저는 이곳에 온지 14년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온 건 아니고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삶에 활력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모서공소는 참 고맙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준 소중한 곳입니다.

교우 2 : 저는 14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사실 시골의 텃세는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당때문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보호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당에 오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해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우 분들이 없었다면 시골에 내려와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교우 3 : 부모님들은 비신자셨고 어렸을 때 자매들끼리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대전에 있는 작은 성당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결혼 할 때 남편이 신자여서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날 남편이 모서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고생도 좀 했습니다만 공소 분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가족같이 보살펴주고 잘 나누어주셔서 이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 공소의 지난 이야기들 중 기억나는 일이나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우리 공소는 196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공소를 지을 당시 외국 신부님이 계셨는데 신자분 집에서 미사와 교리 그리고 세례도 받았 습니다. 해서 공소를 지을 때 독일에서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재나 돈이 드는 것은 지원을 받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교우 들이 힘을 모아 벽돌을 만들어가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릴적 제 기억에 조부모 님이 교리문답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세례받는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신부님께서서는 다음번에 더 교리를 공부해서 세례를 받도록 했지요.



정말 그 시절에는 호롱불로 교리를 익혔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례자가 60~7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공소가 거의 소멸 될 위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임 회장님들과 남은 교우들이 끝까지 공소를 지키며 신앙을 이어가 주셔서 7.8명 정도였던 신자들이 다시 5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평일 미사에 보통 20명 이상 참석하고 전원이 모이면 4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공소는 다른 공소에 비해 젊은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도 잘 이어가는 공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우 5 :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레지오를 한 10년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레지오를 못 했던 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레지오를 안 하니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6년 전에 본당 신부님이 레지오를 새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항상 성모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우 6 : 저는 세례 받은 지 15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을 찾아주셨던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을 보고 정말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당에 차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12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왕 성당에 가는 길이니 다른 분들을 좀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량봉사를 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차량봉사가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 술 한잔할 일이 있어도 ‘아, 내가 성당에 안 가면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냉담도 못하고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운이 절로 납니다.

## 찬미받으소서 197항-201항

- 197항** 가) 올바른 공공 정책의 부재와 부패에 따른 불신에 ( )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지역 국가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일부 기업 집단이 후원자를 자처하며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며, 스스로 어떤 규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 나) 정치가 왜곡된 ( )를 깨어 버릴 수 없고, 극찬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의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 )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 198항** 한쪽은 경제적 ( )만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의 유지나 ( )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남은 것은 전쟁이든지 아니면 환경 보호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정치와 경제 양자가 맺는 불순한 협약입니다.
- 199항** 가) 종교적 고전들이 모든 ( )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술들은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 나) 사실 윤리 원칙들이 모든 현실 상황을 벗어나 순전히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 )이 파악할 수 있는 윤리원칙들은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종교적 언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200항** 인류가 길을 벗어난다면, 곧 공동생활, 희생, 선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대한 동기들을 망각한다면, ( )이 내세우는 모든 기술적 해결책은 세계의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 201항** 가) ( )들 사이의 대화도 역시 시급합니다. 각각의 학문은 자기 언어의 한계 안에 즐겨 머무르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 나) 생태 위기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 ( )을 생각하고 언제나 “실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며 인내와 절제와 관용을 필요로 하는 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0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가	불	박	선	수	생	활	고
오	셋	호	동	합	과	쟁	등
등	수	위	공	공	의	학	적
익	불	물	스	취	같	문	리
확	시	강	볶	스	숙	논	교
바	대	는	닭	짜	로	새	작
오	로	르	이	성	소	질	례
총	만	흐	테	디	사	자	곽

8월 당첨자

최보현 보나(하망동 본당)

김창희 나탈리아(하망동 본당)

배봉근 스테파노(계림동 본당)

김덕수 스테파노(계림동 본당)

#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6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1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기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인간이 농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최고의 폭력이라면, 핵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위적인 핵분열은 인간이 물질 생태계에 가하는 최악의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핵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내밀한 부분인 원자핵에 인간의 칼날을 들이대어 마음대로 난도질함으로써 생태계를 철저히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련하게도 핵분열을 통해 물질 생태계를 마음껏 유린하고 멋대로 조작해서 교란 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는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공멸의 길의 전조가 바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닥쳐올 위험을 모르고 당장의 풍요로움에 흡족해하면서 살다가 파멸의 길을 걸어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핵발전소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지구인 모두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 1. 핵 발전의 원리

모든 물질의 구성요소인 원자(atom)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nucleus)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핵발전이라 생각하는 것은, 원자핵에 속도가 낮은 중성자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 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입니다. 물의 낙하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수력발전이고, 바람을 이용한 것

은 풍력 발전이고,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핵발전입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처음부터 전기 생산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연인원 약 60만명이 동원되었고 총비용이 약 50조원이 들어간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이 바로 그것입니다. 2차대전 중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자치령이 참여한 핵무기 개발 계획의 시초입니다. 불과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초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원폭 기술은 잠수함에 적용되었는데 연료를 오랫동안 갈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핵에너지였던 것입니다. 핵연료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든 후 먼저 터빈을 돌리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땅 위로 가지고 온 게 핵발전소입니다. 프로펠러를 돌린 터빈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원자로의 종류는 개념적으로 수십 가지 형태이지만 상용화된 원자로 형태는 3~4가지입니다.

## 2. 우라늄의 핵 분열 원리

자연계에는 방사성 물질 약 4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은 1,000여종에 이릅니다. 숫자로 표시되면서 약간의 질량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대단히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우라늄도 그렇습니다. 우라늄 원자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쪼개질 때 중성자가 2개 이상 방출됩니다. 그러면 각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때립니다. 거기서 또 쪼개지며 4개 이상의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즉 백만분의 1초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성자가 우라늄을 빨리 때리면 폭탄이 되고 안정적으로 때리면 핵발전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재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너무 높아 식혀야 하기 때문에 냉각재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냉각재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지구가열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 국내 원자로 8기가 가동 중단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한수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함창 본당 고음전 안나의 5단묵주

(1935년경, 길이 42.2cm)

함창 본당 손태원 실비아(84세)의 시어머니 고음전 안나(1900년생)가 사용하던 묵주이다.

실비아 씨가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가 성당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성당이 멀었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무신을 신고, 겨울이면 방석을 꼭 안고 매일 아침 미사를 가시고 낮에 삼종기도를 방안에 서서 바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저도 어머니의 열성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묵주는 실비아 씨가 시집오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훗날 주변에서 어머니를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실비아 씨가 묵주를 이불 속에 넣으며 “어머니 이불 속에서 묵주신공 하세요.”라고 하였답니다.

묵주는 오랜 손길로 닳아 곳곳에 철사와 노끈으로 이어져 있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 성유공소의 종소리

장기택 야누아리오  
가은 본당 성유공소

###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은 본당 성유공소에서 회장을 맡아 50여 년간 활동한 장기택 야누아리오입니다.

### 이끄심

17세 되던 해에 부친을 따라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렵고 집안도 없어서 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좋아 보여 세례도 받지 않고 그냥 성당에 다녔습니다. 마침 교직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을 당시 전 교 회장을 맡아 계시던 어머니 같은 분이 교리도 가르쳐 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며 신앙을 길러주셨습니다.

### 세례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성당을 다니다 21세에 군에 입대할 당시 본당 신부님께서 세례를 받고 입대해야 한다며 단독으로 교리를 해주셔서 야누아리오 성인 축일에 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 공소

제대하고 와서 신앙생활도 농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는 잎담배를 재배했는데 그 일이 보통 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 농암 공소 신자인 아내와 혼배를 하고 몇 년 뒤 이른 나이에 공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최 마태오 형제님의 집 아랫방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얼마 후에 공소가 지어졌지요. 당시에는 신자 수가 많아 공소가 북적거렸어요. 아이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었고 저희 아이 5남매도 그런 환경에서 바르게 자란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원춘 사건 무렵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함께 모여 시위를 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니까 가톨릭 농민회에 대해 감시가 엄청 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봉사 활동을 오는데 봉사 활동 기간 동안 공소에서 생활했지요. 그러다보니 공소 회장을 맡은 저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심해 어디를 가도 늘 따라다니는 등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 바람

예전에는 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을 주러 오시면 장작을 패서 불 때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여 북적거렸지요. 한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18가구에 스물 두세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있던 미사도 없어져가는 상황이라 많이 서운합니다. 본당에서는 공소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드니 본당으로 미사 참례하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레지오팀이 있어 활동도 이루어지고 공소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커서 둘이나 셋만 모여도 공소가 그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큼니다. 해서 저희는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소 안팎에 칠도 하고 청소도 하며 열심히 공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또 공소 신자 대부분 연로하여 본당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미사에 참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도시에서 귀촌하신 교우 가구가 여럿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교님께서 세 가구만 있어도 공소 문을 닫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소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어찌면 외인들에게도 하느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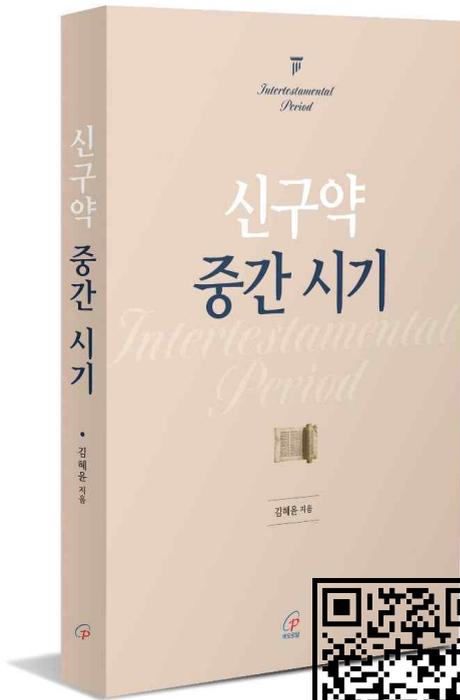
## 감사

어린 나이에 이곳으로 와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공소를 지키며 오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며 살아온 날을 돌아다 보면 오직 감사함 뿐입니다. 나는 항상 하느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늘 기쁘고 감사한 맘으로 살아갑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 신구약 중간 시기

김혜윤 지음 | 560쪽 | 30,000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위치한 ‘신구약 중간 시기’의 사상적 흐름과 정치적 상황, 종교적 특성 등 깊이 있는 학술 정보를 소개하여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는 거대하고도 역동적인 흐름 그 한복판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도록 초대한다.

부당한 관료주의와 박해로 인해 세상이 전복되는 듯한 세기말적 공포와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신구약 중간 시기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저자는 명쾌하게 강의하듯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 부르심



## 감사의 표현

정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  
태화동 본당 주임

이번 여름에 성당 한 켠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두고 미사 후에 교우들이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본당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좋아 보여서 우리 본당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가시면서 제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런 인사를 하십니다. 제 사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인사받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다들 감사의 표현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기뻐하시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쩌면 사제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물을 축복해 주거나 차 축복식을 하게 되어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병자 영성체를 다녀도 고맙다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심지어 교우들과 식사 자리를 해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감사의 인사를 듣다 보니 감사의 인사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제로 살면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난 후 공식 석상에서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

사를 전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도 적잖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성당에 신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혹은 '신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에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심히 신자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보다는 활동하지 못하는 신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의 마음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별거 아닌 나의 행동에 밝게 웃으며 감사를 전하는 교우의 모습을 보며 제 교만함을 깨우치고 겸손함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훌륭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이 마지막 말씀에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는 이유도 영적 겸손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전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제 생활이 감사함 그 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 파도

심민성 디오니시오  
군복무, 모전동 본당

군입대를 하루 남기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다 피곤한 상태로 훈련소에 가기 위해 부모님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가는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선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현역이신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슴에 새겨질 만한 인상 깊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기에, 옅은 미소로 화답하면서 입대하기 전 마지막 학기에 같은 학년 수녀님께서 주신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의 말씀카드를 손에 쥐고 암송하며 긴장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 발을 내딛고 제가 쓰게 될 건물로 이동하였습니다. 짐을 풀고 난 후 앞으로 5주 혹은 1년 8개월을 지겹도록 보게 될지도 모를 동기들과 통성명하며 친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가끔 몇 명은 정말 관계가 깊어져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 중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건설적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거나, 혹은 지금까지 달려오다 뒤를 보니 남아있는 것도 없고 목표마저 흐려진 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못해 비척이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정신교육 시간에 ‘용기’라는 주제에 대한 교육을 듣던 중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이규경 시인의 ‘용기’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시의 마지막에 있는 통상적인 용기에 대한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반전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제목을 보고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기필코 제가 해내겠습니다!’라는 마치 시대가 요

구하는 미덕과 같은 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는 ‘나는 못 해요!’라는 티 없이 진솔한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눈물을 양분 삼아 해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나는 못 한다고, 해낼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용기의 일부라고 말하듯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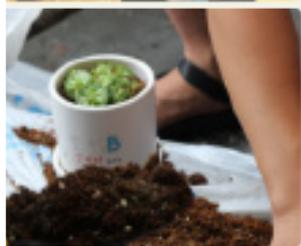
『어쩌다 한국인』을 저술한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행복을 위해서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떤 경우 포기는 용기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이어지게 되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무슨 용기냐고, 누군가는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적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나’와 ‘주변의 기대로 형성되는 나’인데, 후자의 경우 주위에서 거는 기대와 책임이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더 모른 채 삶의 가치를 잃어 갑니다. 그러나 내가 소모되고 고갈되어 갈 때쯤,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남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나는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이상에 휩쓸려 다니는 나의 잔상 안에는 나는 없고 그저 나의 모습만이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다가도 남에게 맞추는 것, 사려 깊음과 나를 소중히 하는 일의 차이는 어디쯤일까요? 배의 갑판 난간에 기대어서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파도가 와서 다른 곳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내려다 보며 나지막하게 바라봅니다. 부서지고 사라질 파도들 때문에 스스로가 바다였음을 잊지 않기를.

## 2025년 초등부 성소자 캠프

8월 5일(화) - 6일(수) 우곡성지에서 초등부 성소자 캠프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초등부 성소자들이 모여 신학생들과 즐거운 물놀이를 했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함께 보며 성경 속 내용을 되뇌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다육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화분을 꾸미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 알 림

### 1.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일 시 : 10월 12일(주일) 10:00 - 17:30

(발대식 14:00, 발대미사 14:30)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경북 안동시 육사로 239)

대 상 : 초중고 주일학교 학생, 본당 청년(젊은 부부 포함)

###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b>교구 내 본당</b>		권양일	10,000	최영옥	10,000	황재혜	5,000
가 은	520,000	김건화	10,000	탁인자	30,000		
계 림 동	814,000	김경란	10,000	황상호	30,000	<b>라스베가스 한인 성당</b>	
공 검	109,000	김경란	10,000				1,742,000
모 전 동	1,491,000	김경수	50,000	<b>월 모 임 편</b>			
목 성 동	1,505,000	김근희	5,000	강면식	20,000	<b>상주가르멜여자수도원</b>	
문 경	461,000	김길자	50,000	설영숙	10,000		300,000
북 면	1,000,000	김정은	20,000	심재임	20,000		
신 기 동	2,154,000	김현정	20,000	이순연	20,000	<b>성 분 도 치 과</b>	
울 진	655,000	김혜경	10,000	최금주	50,000		100,000
의 성	1,221,000	김혜자	100,000				
춘 양	2,000,000	박승철	10,000	<b>이 길 선 편</b>		<b>안 동 신 협</b>	
후 포	825,000	박종대	10,000	강명희	5,000		100,000
		변진의	10,000	권순옥	10,000		
<b>교구 내 기타</b>		서효식	30,000	김중향	5,000	<b>은총의 거울 Pr</b>	
김정현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김지은	10,000		25,000
백동수 신부	10,000	신옥선	10,000	나양수	30,000		
서동호 신부	20,000	신용찬	50,000	박영신	10,000	<b>정의의 거울 Pr</b>	
안영배 신부	10,000	안안택	10,000	백형숙	10,000		20,000
윤성규 신부	20,000	위은숙	10,000	변우경	5,000		
정양모 신부	100,000	이귀호	10,000	송 경	10,000	<b>향 주 삼 덕 회</b>	
정철환 신부	10,000	이임영	30,000	신미란	10,000		20,000
박경순	20,000	이정숙	20,000	양수모	10,000		
박보라	20,000	이호숙	10,000	이길선	10,000		
박정렬	10,000	장준영	10,000	이영섭	20,000		
서영림	10,000	정경자	20,000	전정희	5,000		
이가엘	10,000	정재식	50,000	정옥남	10,000		
		정태진	20,000	최은정	10,000		
<b>타교구 개인</b>		조기섭	10,000	최인숙	10,000		
강윤순	5,000	조원준	10,000	현희성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어려운, 큰 사랑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영미의 불소리가 섬포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나가 되어 들려옵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